

e-사회적 자본으로 분석한 지역 인터넷 커뮤니티의 가능성과 한계*

- 남양주 <화도사랑> 사례를 중심으로 -

The Internet Community and E-Social Capital

- Possibility and Limitation -

송 경 재**

Song, Kyong-Jae

Ⅰ 목 차 Ⅰ

- I. 서론
- II. 기존 문헌 검토
- III. 연구모형과 방법론
- IV. 사례분석
- V. 요약 및 결론

정보통신기술(ICTs) 발전에 따라 지역에 뿌리를 둔 인터넷 커뮤니티가 등장하고 있다. 지역 인터넷 커뮤니티에 천착한 본 연구는 남양주시 <화도사랑> 인터넷 커뮤니티를 분석 대상으로 선정, e-사회적 자본의 형성 가능성과 한계를 진단해보고자 한다. 연구문제는 첫째, net형 시민참여의 토대가 되는 지역 시민사회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e-사회적 자본이 형성되는가? 둘째, 만약 e-사회적 자본이 형성가능하다면 그 특징은 무엇인가? 셋째, e-사회적 자본이 현실공간과의 조응 속에 시민참여에 도움이 되는가? 이다.

논문 접수일: 2008년 5월 10일

* 이 논문은 2005년 정부(교육인적자원부)의 재원으로 학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KRF-2005-005-J08702).

** 경희대학교 인류사회재건연구원 학술연구교수

연구 결과, 지역 시민사회의 커뮤니티 구성은 네트워크화 된 개인으로서의 시민 권능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e-사회적 자본 형성이 가능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 e-사회적 자본의 형성에 따라 현실참여도 증가, 촛불문화제나 총선 등 시민참여 활동도 증가하고 있다. 그렇지만, 지역 커뮤니티는 집합체와 연결되어 있다는 점에서 결속형과 연결형적인 특성을 모두 가지고 있는 “중층적이고 과도기적 성격의 e-사회적 자본”이란 특징도 분석된다.

□ 주제어: 화도사랑, 인터넷 커뮤니티, e-사회적 자본, 중층적이고 과도기적인 형태, 시민참여, 지역 시민사회

This paper is to analyze perspective of the local Internet Community and e-social capital in Korea. The e-social capital is defined as networks together with shared norms, values and understandings that facilitate coordination and cooperation for mutual benefits in the cyberspace. This paper explores the connection between the Internet community and e-social capital by analysing of Hwado-Sarang (community for loving Hwado-Eup, Namyangju-City). There are general conclusions which can be drawn from the analysis on the development of the Internet community.

□ Keywords: ICTs, Internet Community, E-Social Capital, Hwado-Sarang, Civil Participation, Local Civil Society

I. 서론

1969년 미국 국방성의 지원으로 구축된 알파넷(Advanced Research Project Agency Network)은 오늘날 정보의 바다라는 인터넷 네트워크 사회를 구성하는 모태였다. 인터넷은 40년도 안되어 유비쿼터스 시대를 열며 정치·경제·사회·문화변화를 추동하고 있다. 물질 재화가 중심이었던 산업사회와 달리 정보사회는 정보통신기술(Information Communication Technologies: 이하 ICTs)을 활용하여 정보 생산과 전달, 배분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사회이다(Castells, 2001). 최근 정보사회에서 주목받고 있는 것은 사이버스페이스(cyberspace)에서 새롭게 등장한 시민사회의 사회적 연계망(social network)이다. 이런 척도 없는 네트

워크 사회(scale-free network society)는 새로운 형태의 전자적 지구시민사회(electronic global civil society)를 구성하기도 한다.(Barabási, 2002; 민병원, 2005).

정보사회는 지식정보를 바탕으로 하는 새로운 생산동력을 형성하고 과거의 대량 생산시스템은 다품종 소량생산의 유연한 경제를 구축했다. 정치 영역에서도 정보사회로 인한 인터넷 정치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를 둘러싼 다양한 논쟁이 전개되고 있다. 학문적으로도 네트워크 접속의 새로운 사회관계망 형성으로 발생한 다양한 제 현상을 규명하려 하고 있다(Putnam and Resnic, 2000).

한편, 인터넷 등장과 더불어 'net형 시민운동 내지는 네트운동(net movement)'도 활발하다. 네트운동은 인터넷에서 발생하는 이슈를 중심으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자발적인 시민참여운동이다. 네트운동은 시민운동의 인터넷 활용에서 시작되어 네트워크에서 형성된 커뮤니티의 민주적 단련, 새로운 이슈의 등장을 망라한다(Chadwick, 2006; 조화순·송경재, 2004).¹⁾ 최근 인터넷 시민운동과 시민참여를 분석하기 위한 틀로서 신뢰와 규범의 협력적 네트워크로 요약되는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 이론과 접목시킨 해석이 활발하다. 특히 시민사회의 초석이랄 수 있는 지역 단위의 인터넷 커뮤니티가 활성화됨에 따라, 다양한 net형 시민운동은 관심사로 부각되었다. 그것이 바로 지역 시민사회 인터넷 커뮤니티의 e-사회적 자본(e-social capital) 연구이다(Putnam, 2000; 송경재, 2005; Sander, 2005:1~5).

지역 시민사회에서 net형 시민운동 출현은 전통적인 집단행동과는 때로는 유사하게, 때로는 다른 양상으로 전개된다. 이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연구자들은 ICTs 기반 사회적 자본 형성이 가능하며 시민참여, 연계, 호혜적 규범의 수평적 네트워크 구축을 기대한다. 반대로 다른 연구자들은 ICTs가 사회적 네트워크를 파괴하며 개인 사이에서의 파편화와 고립을 가속시키고 전통적인 면대면(face-to-face)의 사회적 자본마저 쇠퇴시킬 것이라 비판도 한다. 따라서 이들은 e-사회적 자본의 존재 자체를 부인한다(Chadwick, 2006:26~27; Putnam and Resnic, 2000). 양자 간의 논쟁은 아직 결과가 도출되지 않고 학자마다 의견을 달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국내외의 연구는 지역 시민사회 인터넷 커뮤니티의 e-사회적 자본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전개되고 있다(Sander, 2005; 송경재, 2005; 장용호, 2002).

본 연구도 인터넷 커뮤니티에서의 e-사회적 자본이라는 논쟁과 관련되어 제기된 다음의 3가지 연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도되었다. 구체화 한다면, 연구자는 지역 시민사

1) 인터넷 기반 네트운동은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한국도 2002년 효순·미선양 사건을 계기로 2004년 대통령 탄핵반대, 그리고 2008년 미국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시위에서도 인터넷의 영향력은 증가하고 있다.

회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e-사회적 자본이 형성되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천착했다.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net형 시민참여의 토대가 되는 지역 시민사회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e-사회적 자본이 형성되는가?

둘째, 만약 e-사회적 자본이 형성가능하다면 그 특징은 무엇인가?

셋째, e-사회적 자본이 현실공간과의 조응 속에 시민참여에 도움이 되는가?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I 장은 문제제기와 연구의 목적, 연구문제를 도출하고 II 장은 기존 사회적 자본 연구를 비판적으로 검토한다. III 장에서는 방법론적인 조작화와 분석의 틀을 제시할 것이다. IV 장은 사례연구를 위한 내용분석과 참여관찰, 심층인터뷰를 통해 신뢰와 규범, 수평적 네트워크의 특성과 시민참여, 민주주의적 함의를 규명할 것이다. 마지막 V 장은 연구 내용을 요약하고 e-사회적 자본의 가능성과 한계를 제시한다.

II. 기존 문헌 검토

1. 사회적 자본 연구 동향

사회적 자본은 '협력적 행위를 촉진시키는 신뢰(trust), 규범(norm), 수평적 네트워크(horizontal network)로 이루어진 공공재(public goods)적인 사회조직의 속성'이다. 사회적 자본은 사회 네트워크사이에 형성된 연계성(connections)으로 간주한다. 따라서 사회적 자본은 다양한 사회적 네트워크의 가치를 반영하는 것이고, 시민성을 향상시켜 민주적인 거버넌스의 토대가 된다(Onyx and Bullen, 1997; Portes, 1998; Putnam, 1993; 2000; 주성수, 2006).

사회적 자본의 초기 문제의식은 토크빌(Tocqueville, 2003)과 매디슨(Madison)에서 시작된다. 미국 민주주의를 관찰한 토크빌은 사회적 자본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자발적인 시민의식과 단체구성의 기술(art of association)이 시민사회 성숙에 기여한다고 분석해 공동체 참여와 민주주의 발전의 상관성에 관심을 보였다. 그리고 매디슨도 미국정치에서 다원주의적 전통, 결사체적인 삶과 민주주의의 관계에 관한 고민을 발표한다(Diamond,

1999).

사회적 자본이란 용어가 보편화 된 것은 하니판(Hanifan, 1916)에서 비롯된다. 그는 웨스트 버지니아의 지방교육 감독관으로 성공적인 학업을 위한 지역 커뮤니티의 중요성을 언급 하면서 사회적 자본 개념을 도입한다. 사회적 자본 논의의 전환점은 1970년대 이후 사회학 자들에 의해 발전된다. 특히, 콜먼(Coleman, 1990)과 부르뒤에(Bourdieu, 1986:249)의 논의는 이론적 발전에 큰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된다(Fukuyama, 1999; Norris, 2002:137~138; Huysman, and Wulf, 2004). 그리고 1990년대 후반에는 퍼트남(Putnam)을 위시로 세계은행과 OECD 등에서 다각적인 연구로 사회적 자본 개념은 대중화된다. 이런 학문적 경향은 소위 토크빌적 공동체주의라고 할 수 있는 '네오 토크빌리안(neo-Tocquevilleans)'으로 계승된다(Edwards and Foley, 2001; Whittington, 2001).

한편, 사회적 자본 연구가 보편화 되면서 국가·지역별 연구도 활발하다. OECD(2001)와 세계은행(World Bank, 2004)은 저개발국가 발전전략으로 사회적 자본 접근법을 도입했다. 아일랜드의 NESF(2003)와 호주 통계국(ABS, 2002:5)도 지역단위에서 시민참여와 민주적 거버넌스 발전 전략 차원에서 사회적 자본 형성과 발전에 주목한다.

학자들 역시 지역 시민사회의 발전을 사회적 자본에서 찾고 연구가 활발하다. 스톨과 로첸(Stolle and Rochon, 1998:50~52)은 지역 내의 행정과 지역 공동체 내에서의 참여와 협력, 일반화된 신뢰와 호혜성을 분석하여 관용과 미래의 대한 낙관 평가를 변수로 두고 지역 사회적 자본을 분석한다. 로히(Rohe, 2004:159~160)도 주민들의 관여수준, 사회적 네트워크의 수준, 신뢰와 역사와 조직, 인프라의 효과성을 바탕으로 지역에서의 사회적 자본을 연구한다. 그 결과 지역 시민사회의 사회적 자본 형성과 발전에서 맥락적이고 구조적인 차이 등 다양한 요인이 사회적 자본 형성에 중요한 영향 변수임이 확인된다.

국내에서도 지역사회 사회적 자본을 연구하거나, 인터넷 시민사회 분석, 지역 간 비교연구, 지역의 협력적 규범의 생성으로서 공유지의 이용 등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박희봉·김명환, 2000; 박희봉 외, 2005; 장용호, 2002; 송경재, 2006).

2. 지역 시민사회 네트워크와 e-사회적 자본

한편, 정보화 진전과 함께 사회적 자본 접근의 개념적·논리적 심화발전이 계속된다. ICTs 발전에 따른 인터넷 커뮤니티에서의 e-사회적 자본연구가 그것이다. 인터넷에서의 활동이 사회적 자본 형성에 영향이 있는가를 규명하고자 하는 시도이다.²⁾

e-사회적 자본은 이미 선행연구에서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는 개념이다. 샌더(Sander.

2005)는 미국의 블로그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e-사회적 자본 형성 가능성을 분석했다. 그리고 국내의 많은 학자들도 인터넷 커뮤니티에서의 사회적 자본 형성과 발전이란 측면에서 e-사회적 자본이란 용어를 사용한다(안명규·류정호, 2007:124; 이원태, 2003). 웨버 등(Weber et al., 2003)은 e-사회적 자본 접근이 전자민주주의의 잠재력을 확인해 줄 수 있음을 일찍이 간파했다. 이렇듯 학자들은 인터넷 사회적 자본을 e-사회적 자본으로 통칭해서 사용하고 있다. 1990년대 이후 시작된 디지털 타운(digital town) 프로젝트는 지역시민사회의 인터넷 사용이 수평적인 네트워크와 신뢰의 구조에 영향이 있음에 주목한다. 본 연구에서 분석하고자 하는 e-사회적 자본 역시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일반화된 신뢰에 바탕을 둔 시민참여와 협력의 공공재적인 속성을 가지는 사회적 자본”으로 규정하여 사용한다.

ICTs의 급속한 보급은 과거 단절되었던 시민들 간의 연계를 활성화시키는 측면이 있다. 지역 시민사회 e-사회적 자본의 선행연구를 검토하면 주로 형성과 등장 가능성에 초점이 있다. 연구 흐름은 지역 커뮤니티의 형성에 따라 두 가지로 구분된다. 지역의 자생적인 인터넷 커뮤니티와 계획적인 디지털 타운연구가 그것이다. 두 연구 흐름 모두 지역 인터넷 커뮤니티가 e-사회적 자본 형성에 영향이 있는지 없는지에 연구의 초점을 둔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그러나 최근 지역시민 인터넷 커뮤니티 연구는 단순한 구분을 벗어나 보다 심층적으로 발전한다. 사이버스페이스의 e-사회적 자본 형성에 주목하고, 현실공간과의 조응과 시민참여와의 인과성을 규명하려는 시도로 발전하고 있다. 연구범위도 단순히 e-사회적 자본 형성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풀뿌리 전자 민주주의(grass-roots e-democracy) 구현으로서 지역 시민사회와의 연계성을 모색하고 있다. 이상의 논의는 3가지 시각으로 전개되고 있다.

첫째, 지역시민 인터넷 커뮤니티가 e-사회적 자본 형성에 기여하고 시민참여와 협력, 신뢰의 거버넌스로 발전한다는 낙관론의 입장이 있다. 이런 입장을 강조한 학자들은 라인골드(Rheingold, 2002)를 비롯한 지역 인터넷 커뮤니티의 강점에 주목한 이들이다. e-사회적 자본의 낙관적인 전망은 블랙스버그 전자마을(Blacksburg Electronic Village; 이하 BEV)과 같이 네트에서 공통적인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연계가 가능하고 집단, 직장 동료,

2) 지역 시민사회 인터넷 커뮤니티의 e-사회적 자본연구와 직접 연관된 것은 아니지만 잠재적 가능성을 밝힌 선행 연구는 다양하다. 쿠안하세와 웰만(Quan-Haase & Wellman, 2002)은 인터넷 활동이 시민참여, 네트워크 형성을 보완하고 있는 것을 증명했다. 카츠와 라이스(Katz and Rice, 2002: 246)는 최소한 10%의 인터넷 사용자가 커뮤니티에 가입하고 있으며 상호작용을 통해서 이익 기반 사이버 공동체(interest-based cyber community)를 형성하고, 복잡한 사회적 관계의 환경을 재구성한다고 보았다. 그리고 하우드와 맥킨토시(Harwood and McIntosh, 2004)도 세계은행 사회적 자본 조사 설문 결과를 사용하여 오프라인에서 커뮤니티를 즐기는 사람이 온라인 신뢰도 증가함을 증명했다. 그리고 현실공간과 연계되어 있지 않더라도 온라인에서의 심의와 토론 커뮤니티에 적극적임을 밝혔다.

클럽, 그리고 이웃 간의 친밀감과 의사소통이 활발해 타인에 대한 일반적 신뢰(generalized trust)형성에 긍정적인 기능을 할 것으로 본다(Sander, 2005:1~4; Casalegno, 2001).

크라우트 등(Kraut et al., 2002)의 연구는 지역 시민사회의 e-사회적 자본 연구에서 중요한 함의점을 제공했다. 그들은 미국 피츠버그(Pittsburgh)에 기반을 둔 지역 인터넷 커뮤니티인 HomeNet을 모니터한 결과, 초기에는 반 인터넷 효과(anti-Internet effect)가 나타났지만 장기적인 e-사회적 자본 형성을 실증적으로 증명한다. 햄튼과 웰만(Hampton and Wellman, 2003)은 토론토(Toronto) 외곽 지역 커뮤니티가 약한 연계구조로 이어지고 인터넷이 연결되지 않은 가구에 비해 이웃에 대해 잘 알고 대화하는 네트워크가 형성되었음을 발견했다. 카사레노(Casalegno, 2001:22~27)도 BEV를 분석, 공적영역과 사적영역의 조합으로 약한 연대(weak ties)가 주민 60%의 네트워크링이란 성과로 나타난다. 이와 함께 주민간의 연계와 협력 등이 증진되는 효과가 있다고 분석한다(Blanchard, 2004). 이들은 기술결정론의 오류라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지역 커뮤니티에서 e-사회적 자본이 인터넷을 통한 민주적 잠재력에 많은 가치를 두고 있다.

둘째, 지역 시민사회의 e-사회적 자본의 부정적인 입장, 나아가 전통적인 사회적 자본마저 쇠퇴할 것이란 논의도 있다. 이 주장에 동조하는 학자들은 인터넷의 파편화된 특성으로 지역 시민사회의 커넥션을 제한하고 전통적 결사체와 시민참여도 제한할 것으로 본다. 인터넷은 개인을 공동체 삶 형성의 가장 좋은 장소(great good places)에서 고립시켜 네트워크를 깬 것으로 우려한 것이다(Hampton and Wellman, 2003:279).

이를 주장하는 주요 학자는 퍼트남이다. 퍼트남은 ICTs가 전통적인 사회적 자본을 훼손할 것이란 주장을 펼치며 4가지 장애요인(obstacles)을 지적한다(Putnam, 2000:174~179). 첫째, 정보격차(digital divide)로 인해 '좁고 제한된' 공통 이해를 가진 개인들로 구성된 토론 모임이기 때문에 확장된 사회적 자본으로 발전하기는 제약이 있다. 둘째, 면대면 접촉기회의 상실이다. 셋째, 사이버 발칸화(cyber balkanization)로 인터넷에서 만난 사람들은 공공의 재화를 생산하기 보다는 사적이익(private interests)을 추구하는 모임으로 변할 가능성이 크다(Furnback & Thompson, 2000). 넷째, 실질적인 연계나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할 것인가라는 문제제기이다(송경재, 2006에서 재인용).

톤 등의 연구(Tonn, Zambrano, and Moore, 2001)도 지역 인터넷 커뮤니티가 사회적 자본을 증가시키지 않는다고 했다. 커뮤니티 회원들 간의 상호작용을 촉진하는데 있어 역할이 상대적으로 적고 근본적으로 지역 인터넷 커뮤니티는 회원들 간 관계의 네트워크 밀도를 증가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았다(Blanchard, 2004:56). 채드윅(2006:26~27)과 웰만 등(Wellman et al., 2003)도 e-사회적 자본이 인터넷으로 인한 네트워크화 된 개인주의(networked individualism)로 간주한다.

이상에서 살펴본 지역 시민사회의 e-사회적 자본 강화와 쇠퇴론 연구는 많은 시사점을 제공하지만 결정적으로 현상 해석에 부진하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현실에서는 지역 시민사회의 다양한 인터넷 커뮤니티 활동이 목도되는 바, 실증적인 차원에서 e-사회적 자본 검증이 부재하다. 급변하는 현상과 달리 인식론적 증명은 뒤쳐지는 간극이 발생한 것이다.

이에 보다 활발한 검증을 요구하는 유보적이고 보완적인 입장(e-social capital supplement approach)이 존재하다. 보완론은 인터넷 네트워크나 공동체 내부에서 만의 사회적 자본 형성에는 회의적이지만 오프라인 사회활동이 이를 “보완”해 줄 것으로 평가한다. 이런 변화는 비판론자인 퍼트남의 최근 연구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퍼트남은 이를 ‘가상의 사회적 자본(virtual social capital)’이라 칭하고 있다(Putnam, 2000:170). 그는 가상의 사회적 자본이 실제 사회와 연계되어야 하는데 현실과 가상공간의 상관관계를 확인하기는 어려워 이를 증명하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그 이유는 실제 인간의 사회생활이 이루어지고 사회집단간의 네트워크는 현실공간에서만 가능할 것이란 생각 때문이다.

그리고 퍼트남과 레스닉(Putnam and Resnic, 2000)은 evite.com의 예에서 e-사회적 자본의 보완적 가능성을 제시한다. evite.com은 사회적인 일정 관리(social calender)로 지인들에게 기념일이나 이벤트를 환기시켜준다. 연구는 인터넷이 사회적 연계의 동적 네트워크를 형성함으로 가상과 실제 커뮤니티 간의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제시한다. 즉 인터넷은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기 보다는 기존의 사회적 유대(social ties)를 유지하는 유용한 도구임을 지적하고 보다 실증적인 연구 필요성을 제기한다(Koku, Nazer, and Wellman, 2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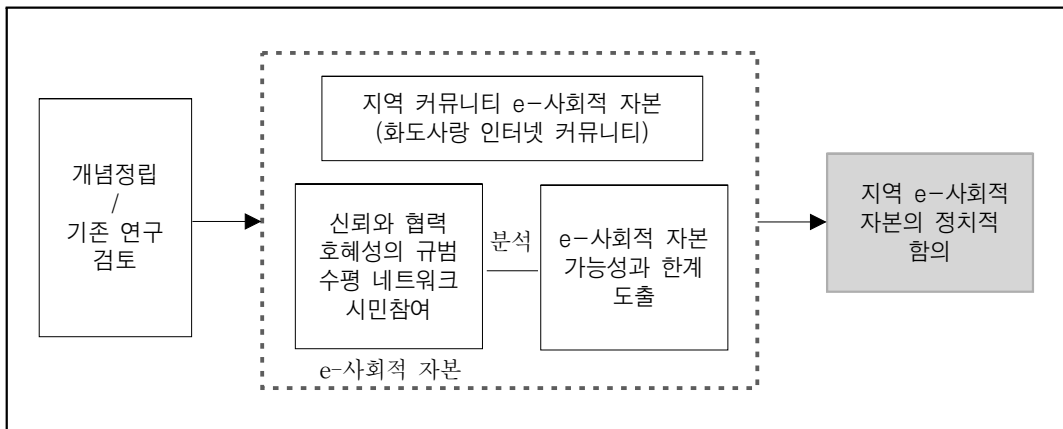
따라서 현 단계 지역 시민사회의 e-사회적 자본의 검증이 가능하다고 불가능하지 않다는 결론은 성급할 수밖에 없다. 그 이유는 e-사회적 자본 강화론과 쇠퇴론적 증거가 모두 유용한 적실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고로 연구에서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e-사회적 자본의 실제적 현상분석과 이를 둘러싼 다양한 행태적 특성을 파악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우후죽순 격으로 등장하고 있는 지역 시민사회 인터넷 커뮤니티가 e-사회적 자본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나아가 현실공간에는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경험적으로 규명하고자 한다.

III. 연구모형과 방법론

1. 연구모형

기존 연구에서도 확인한 바, 연구자들은 지역 시민 커뮤니티의 형성에 따라 신뢰와 협력, 규범의 형성 가능성에 주목한다. 일부에서는 e-사회적 자본으로 발전하고 일부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그렇다면 한국에서의 지역 시민사회 인터넷 커뮤니티는 어느 경우에 속하는가? 그리고 일반적인 사회적 자본 형성과 마찬가지로 e-사회적 자본이 형성되면 시민참여도 확산되고 자발적인 결사체 성원들은 이에 단련되어 더 적극적인 참여에 나서게 될 것인가?(Chadwick, 2006; Edwards and Foley, 2001; NESF, 2003) 이는 한국 지역 시민사회의 e-사회적 자본을 연구하는데 있어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연구자는 e-사회적 자본 형성 가능성과 시민참여 등을 분석하여 지역시민참여와 커뮤니티의 가능성과 한계를 규명하고자 한다. 이를 증명하기 위한 연구모형은 다음 <그림 1>과 같이 설정할 수 있다.

<그림 1> 분석의 틀



2. 연구 방법론

〈화도사랑(<http://cafe.naver.com/newhd.cafe>)〉을 분석 대상으로 선정한 이유는 첫째, 지역 인터넷 커뮤니티로서 많은 회원 수를 거느리고 있기 때문이다. 2008년 4월 10일 현재 5,900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는데 전체 세대수가 29,297세대임을 감안하면 많은 가입률이다. 둘째, 〈화도사랑〉은 남양주시 발전에 따른 신흥도시지역으로 인구팽창에 따른 시민운동과 net운동이 활발하다는 특징이 있다. 주요 이슈는 교통, 환경, 임대아파트 철거 등의 의제가 끊이지 않은 지역적인 특색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지역시민 인터넷 커뮤니티의 한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변수의 측정은 하버드대의 퍼트남이 주도하고 있는 Saguro Seminar의 미국 시민참여에서 제시하고 있는 2000년~2006년 사회적 자본의 핵심 측정지표(<http://www.hks.harvard.edu/saguaro/measurement.htm>), NESF(2003), 세계은행(2001), 호주 통계국(ABS, 2002) 지표를 반영했다.

연구 방법론은 2가지를 적용했다.³⁾ 첫째, 전형적인 사례연구(case study) 방법론으로 2008년 2월부터 4월까지 남양주시 〈화도사랑〉을 대상으로 참여관찰(participant observation)과 문헌연구, 심층 인터뷰의 질적 연구(qualitative research)를 통해 측정 변수별로 공통점과 특성을 추출했다(King, Keohane, and Verba, 1994). 단일 사례연구(case study)는 인지적이고 역사적인 접근을 통해 일반화를 시도하는 방법으로 데이터의 수집에 주의해야 한다. 이 편향을 극복하기 위해 참여관찰과 운영진, 회원 인터뷰를 통해 보완했다.

두 번째 방법론은 내용분석(contents analysis)으로 지역 시민사회 내의 커뮤니케이션과 운영을 분석하기 위하여 주요 게시판을 범주별로 코딩하여 계량연구(quantitative research)를 실시했다. 내용분석은 변수측정을 목적으로 체계적이고 객관적이며 수량적인 방식으로 분석하는 방법으로 정의할 수 있다(Wimmer and Dominick, 1983; King, Keohane, and Verba, 1994). 이를 위해서는 몇 가지 요구조건이 필요한데, 커린저(Kerlinger, 1973)의 지적대로 분석내용이 명백하고 일관성이 있어야 하고, 그 내용 조사자들의 개인적 특성이나 편견이 최소화해야 하며, 계량화 된 자료를 제시하여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분석은 SPSS(Stat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 ver. 12.0을 이용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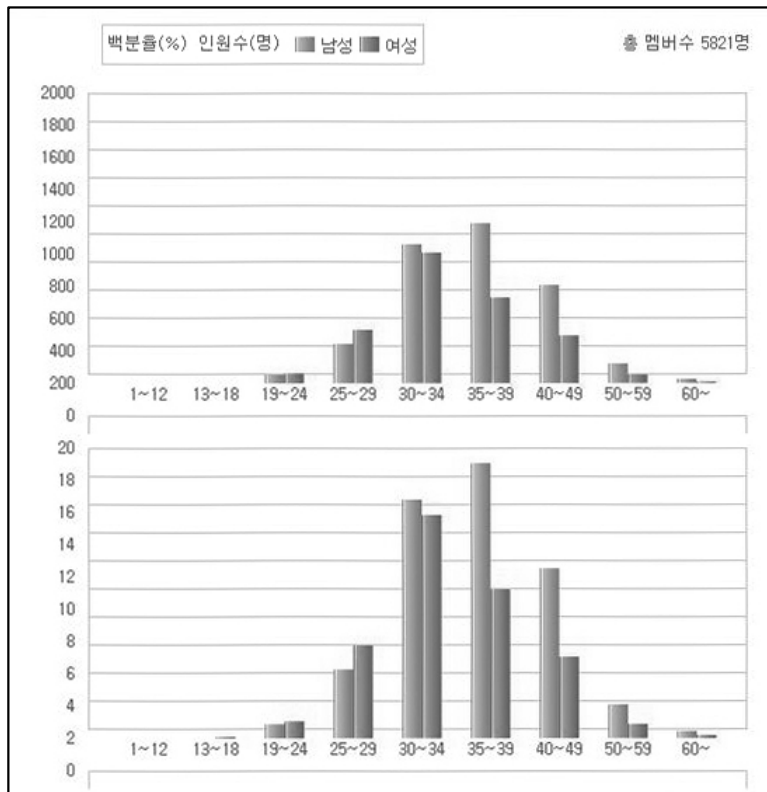
3) 이 같은 2단계의 연구 방법론은 스티브 존스(S. Jones, 2000:456~457)가 지적한 대로 사이버스페이스에서의 정치·행정현상 분석에 있어 유용한 방법으로 평가받는다.

IV. 사례 분석

1. 사례 개요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의 인터넷 커뮤니티인 <화도사랑>은 회원 상호간의 단합과 친목도모를 통하여 돈독한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정보교환 및 이해와 상식을 습득하여 남양주시와 화도읍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개설되었다. 커뮤니티 개설일은 2006년 10월 25일이고 회원은 4월 10일 현재 5,900명을 넘어선 대형 지역 인터넷 커뮤니티이다. 화도읍 인구가 29,297세대 77,491명인 점을 감안하면 지역에 관심을 가지는 회원이 많은 시민사회 인터넷 커뮤니티이다(화도읍 홈페이지 <http://hwado.nyj.go.kr/> 검색일: 2008. 4.11).

<그림 2> 카페 성별, 연령별 통계자료 (2008년 3월말 현재)



* 출처: <http://cafe.naver.com/newhd>

회원은 대부분 화도읍에 거주하거나, 거주했던 사람들이다. 회원의 구성을 보면 화도읍 주민이 약 2,300명이고 외지인이 2,600명이다.⁴⁾ 연령별 구성비를 보면 30~40대의 구성이 전체 회원의 90%에 달할 정도로 젊은 커뮤니티이다. 성별로는 그래프에서 확인되듯이 남성의 비중이 약 65%이고 여성이 약 35%이다.

<표 1> <화도사랑> 커뮤니티 개요 및 주요 구성

개 요	
커뮤니티 개설일	- 2006년 10월 26일
회원 수	- 5,911명(2008년 4월 11일 현재)
운영	- 회장, 부회장, 운영진장, 총무, 운영진 등 10여명 내외
누적 게시물 및 방문자	- 게시 글 : 14,329개 - 방문자 : 793,590명
주요 구성	
필독하세요	· 커뮤니티 가입과 회원활동 유의사항 (회칙/공지사항 등)
가입인사 & 등업신청	· 가입인사 및 출석체크 및 일기쓰기
좋은 의견주세요	· 화도사랑에 요청합니다. · 화도읍 전체 민원 요청
명예의 전당	· 유익한 정보를 모아두는 공간 (운영진이 결정)
화도사랑	· 커뮤니티 및 토론 공간 · 정모, 번개, 설문조사, 축하인사, 구인구직까지 다양한 메뉴
화도이야기	· 주부와 자녀 관련 정보 제공 게시판 · 먹거리, 홍보 다투리, 질문 및 자유 게시판, 동영상, 유머 등
뉴스	· 남양주 및 화도읍 관련 뉴스 모음
동호회	· 커뮤니티 내의 지역 동호회 (족구회, 산악회 등 4개 운영)
부동산 정보	· 지역 관련 부동산 정보
화도읍 지역 게시판	· 각 지역별 커뮤니티 공간
하위 링크	· 빌라, 주택 카페 링크 (1개 카페 링크) · 아파트 카페 링크 (17개 카페 링크) · 민원링크(도지사, 남양주시청,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등 5개 사이트 링크) · 각종 사이트 링크(도서관, 아파트 시세, 은행 등 11개 사이트 링크) · 동맹사이트 링크 (호평 평내사랑 등 2개 커뮤니티 링크) · 이웃 사랑 (카풀 정보 링크)

* 출처: <http://cafe.naver.com/newhd.cafe>(검색일: 2008. 4.11)에서 연구자가 재구성.

4) 외지인이 가입한 이유에 관해 운영진은 “100% 분석한 것은 아니지만 현재 화도가 개발지역이라 아파트 당첨자가 미리 관심을 가지고 인터넷 커뮤니티에 가입하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과거 이 지역에 살았던 사람들이 이사를 갔지만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인터넷 커뮤니티 활동을 하기 때문에 직간접적인 지역 연고성은 있다”고 강조했다(운영진 인터뷰: 2008. 4.14).

회원구분은 3단계인데 먼저, 커뮤니티 가입을 한 회원은 새싹멤버이다. 그리고 주소를 동 단위까지 공개하고 아이디를 한글화하면 감사멤버로 승격하고 화도지역 거주민은 추후 화도 멤버로 승격된다. 운영진은 회장과 부회장, 총무와 운영진장 등 10여명으로 구성된다. 임기는 1년이다. 운영진은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는데 의제는 운영과 관련된 전반적인 권한을 행사하며 감사 및 의결 심의권을 가진다. <화도사랑> 커뮤니티의 주요 서비스 내용은 게시판 기능을 바탕으로 하는 글쓰기와 토론, 정보공유 등이 주를 이룬다.

2. 지역 시민사회 커뮤니티의 e-사회적 자본

1) 신뢰

지역 시민사회 커뮤니티의 e-사회적 자본 형성 가능성을 증명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신뢰와 협력, 규범과 규칙, 네트워크라는 변수의 조작화(manipulation) 과정을 거쳤다. 첫째, 신뢰는 사회적 자본의 가장 중요한 변수이다. 신뢰는 사회적 자본 연구에서 핵심요소이다. 사적신뢰와 일반화된 신뢰는 사회적 자본의 성격을 규정한다. 본 연구에서도 이를 바탕으로 신뢰의 영역을 두 측면으로 파악하고 특히 일반화된 신뢰를 확인한다(Stolle, 2004; Fukutama, 1999; Giddens, 1990). 이를 통해 ① 지역 시민사회 커뮤니티의 회원 및 운영진 신뢰도 평가, ② 커뮤니티 정보 신뢰에 대해 규명해 볼 것이다.

우선, 지역 시민사회 커뮤니티의 회원 및 운영진 내적 신뢰도 평가는 매우 강고한 것으로 평가된다. 일반적으로 커뮤니티 신뢰는 그라노비트(Granovetter, 1973)가 개념화한 약한 연대(weak ties)에 바탕을 두고 발전한다. 그렇지만 <화도사랑>은 이와 달리 강한 연대의식도 발견된다. 가장 많은 댓글이 달려있는 게시물 100건의 내용분석 결과, 21건의 카페운영 관련 글 중 19건이 운영진에 관한 강한 지지글이었고 운영 문제점을 지적한 글은 2건에 불과하다. 일부 운영의 불만사항도 발견되지만 댓글을 분석하면 지지글의 비중이 높다.⁵⁾ 회원의 운영진에 관한 신뢰는 <화도사랑> 3대회장과 운영진의 선출을 알리는 댓글분석에서 잘 나타난다. 총 35개의 댓글이 포스팅 되었는데 운영진의 격려와 축하의 글이 주류였다. 회원들의 평가는 글에서 발견되지만 운영진들의 평가는 약간 다르게 나타났다.

회원과 운영진간의 신뢰도가 높은 편이지만 일부에서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특히 화도읍이 광역지역인 관계로 지역마다 약간의 이해관계가 차이가 나기도 한다. (중략) 하지만 모임에서 회원가족과 함께 만나고 지역민이라는 동질성을 가지고 있어 쉽게 문제를 일

5) 보다 자세한 사항은 <표 4>를 참조 바람.

오키지 못하는 장점도 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회원 상호간, 그리고 회원과 운영진간의 신뢰도는 다른 인터넷 커뮤니티보다 지역성이 연결되어 강한 것 같다.

(운영진 인터뷰 녹취, 2008. 4.14)

또 운영비 및 후원금의 투명한 공개도 내적신뢰 형성에 영향이 있다. <화도사랑>은 행사 때마다 후원비와 경비를 투명하게 공지하고 있다. 2007년 3월 6일 게시된 후원금 내역서는 지출 영수증과 통장 사본을 스캔하여 이미지로 게시하고 있다. 이런 사소한 것도 공개하는 투명한 운영이 신뢰를 향상시키고 있다고 운영진은 평가한다(게시글: 2771번, 검색일: 2008. 4.13; 운영진 인터뷰: 2008. 4. 14).

둘째, 커뮤니티 정보 신뢰도에 관한 분석을 실시했다. 이는 세부적으로 2가지 측면에서 살펴본다. 첫째, 내적인 정보신뢰와 둘째, 외부인의 정보신뢰도이다. 특히 커뮤니티 외부인이거나 초기 방문자의 정보신뢰는 사회적 자본의 핵심인 일반화된 신뢰 구축과 연관한 해석이 가능하다. 분석 결과, 커뮤니티에서 활발한 것은 역시 지역정보와 관련된 내용이다. 가장 많은 게시 글이 있고 토론도 활발하다. 한편, 게시 글 중에서 부동산관련 글은 정보출처를 반드시 명기한다. 잘못된 정보로 인한 커뮤니티 신뢰가 저하될 것을 우려한 조치이다. 그리고 오류가 있을 경우, 다른 회원이 이를 수정하는 과정이 반복된다. 회원들 간의 이른바 웹 2.0 방식의 집단지성(collective intelligence)이 발현되고 있다. 부정확한 정보가 게시된다고 해도 회원들에 의해 수정되는 과정이 반복되고 이를 조율하는 운영진의 존재는 중재자(mediator)로서 기능하고 있다.

운영진에 따르면, <화도사랑>은 초창기부터 게시 글의 신뢰성이 높았다고 한다. 그 이유는 지역에 기반을 둔 전문가들이 많았고, 정보를 바탕으로 지역민들의 다양한 이해관계가 해결되었기 때문이다. 게시 글 중에서 지역에 처음 이사 온 회원이나 외지인들이 지역현안에 관한 궁금증, 질문, 상가나 시장위치 등을 질문하는데 여기에 성실한 답변이 있다. 처음 커뮤니티에 접속한 사람들이 이사를 오면 모든 것을 찾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화도사랑>에 가입하면서 해결되었다는 감사글을 올리는 경우가 많다. 정보 커뮤니케이션의 과정에서 결속력이 형성되고 강한 정보 신뢰도가 표출되는 것은 당연할 것이다. 이런 현상은 타인에 대한 호혜성과 일반화된 신뢰라는 측면에서 중요하다(박종민·김왕식, 2005; 송경재, 2007).

2) 규범

후쿠야마(1999)에 따르면, 규범은 보상을 기대하지 않고 서로 나누거나 교환하는 포괄적 호혜성으로 이루어진 행동양식으로 간주한다. 규범은 단순히 강제적인 구속만을 지니는 것이 아니고 이를 따름으로써 사회생활이 순탄하게 이루어지는 측면도 있다(장용호, 2002). 따라서 규범은 제도와는 다르게 암묵적이고 인지적인 형태로 존재하는 경향이 강하다. 연구에서는 공적으로 제도화된 형태와 성문화 되지는 않았지만 도덕적 관습 차원의 규범을 구분해서 분석한다. ① 호혜적인 행위, ② 회칙의 존재와 형성과정, ③ 위반자 처벌·제재 등 다툼발생으로 측정했다.

우선, 대가를 바라지 않고 상대방에게 베푸는 호혜적인 행위는 <화도사랑>이 개설된 지 3년이 경과하지 않아 많지는 않지만, 부분적으로는 발견된다. 댓글 많은 게시 글을 분석하면, 2008년 이후 이 같은 호혜적인 게시 글이 등장하고 있다. 주로 주민들 간의 무료 거래가 주를 이루고 있지만 “도움이 필요합니다”와 같이 회원자녀 병원비 모금운동이 벌어지기도 한다. 댓글이 58개가 달렸는데 건강을 비는 격려 글과 함께 십시일반으로 많게는 20만원에서 적게는 몇 만원에 이르기까지 성금이 모금되었다. 그리고 또 다른 게시 글 15794번의 경우 봉사활동의 정기적인 개최를 이야기 하고 7명의 회원이 동조하고 있다. 이외에 물물교환이나 베품시장 등 게시 글도 발견된다(게시글 13804번).

<표 2> 댓글 많은 글 중 호혜성 내용분석

번호	제목	작성일	조회	댓글 수
1	도움이 필요합니다.(나눔의 장)	20080319	920	58
2	상추, 잎 들깨(깻잎)씨앗 나눠드립니다.	20080329	342	39
3	스캐너/프린터기 필요하신 분	20080130	634	34

* 출처: <화도사랑>커뮤니티에서 연구자가 재구성.

다음으로 살펴본 것은 제도화된 규범으로서의 명문화된 회칙의 존재와 형성과정이다. <화도사랑>은 오픈된 지 6개월만인 2007년 4월 2일 자체회칙을 제정했다. 이후 2007년 5월, 11월, 2008년 3월 개정해 오늘에 이르고 있다. 게시판에 변경회칙을 공개하고 있기 때문에 변화의 양상을 잘 확인할 수 있다. 회칙 개정은 운영진 회의에서 1차 안을 마련하고 그것을 회원에게 공개해 수정 보완하는 절차를 거친다(운영진 인터뷰: 2008. 4.14). 회칙을 투표로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운영진은 다음과 같은 답변을 제시했다.

〈화도사랑〉 회원들은 운영진이 힘들다는 것을 알고 있다. 돈이나 어떤 이익 보다는 자발적인 참여에 의해 운영진이 구성되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으면 운영진의 의견을 따라준다. 회칙도 마찬가지이다.

(운영진 인터뷰 녹취, 2008. 4.14)

인터뷰 결과는 신뢰와 호혜성에 기반한 제도화의 과정이라는 점에서 〈화도사랑〉의 신뢰와 협력의식을 엿보게 한다. 일반적으로 규범이 성문화·제도화 과정에서는 반발이 있다. 하지만 내용이 회원들과 공유되고 이를 용인하기 때문에 성문화가 쉽게 이뤄지는 것이다. 오프라인에서 공유자원 배분을 둘러싼 규범과 협력 모델을 연구한 오스트롬(Ostrom, 1990)은 무리한 제도화가 오히려 공유자원을 훼손할 수도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그렇지만 이와 달리 역시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경우, 단기간의 발전적인 모델이 가능함을 〈화도사랑〉 회칙의 제도화과정에서 알 수 있다.

그리고 위반자에 관한 제재와 처벌과정도 존재한다. 〈화도사랑〉은 지역 커뮤니티이기 때문에 일부이지만 게시 글이나 정보로 인해서 회원 간의 갈등이 발생하기도 했다. 검증되지 않은 소문을 반복적으로 게시, 도배하는 경우도 발견된다. 하지만 이 원칙이 바뀌면서 항상 게시 글 출처를 명기하게 하여, 게시 글 신뢰도도 높이고 위반자에 대한 자연스런 제재를 연결한다. 현재 징계절차는 3단계인데 1단계는 삭제, 2단계는 경고, 3단계는 강제 탈퇴 조치이다. 상업적인 글을 반복적으로 게시, 과도한 정치편향으로 〈화도사랑〉을 사칭, 지역이기주의로 인한 분란 등으로 2~3명이 탈퇴되었다고 한다.

운영진들은 커뮤니티에 대한 비판도 수용한다고 한다.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게시판을 검색한 결과, 운영진에 건의하는 글이 상당히 발견된다. 이에 관해 운영진은 ‘건전한 비판’으로 표현한다. 운영진이 문제점을 투명하게 공개한다는 것은 자신감의 발로이기 때문에 오히려 위반자 처벌에 정당성이 부여된다고 한다(운영진 인터뷰: 2008. 4.14). 댓글 많은 글의 내용분석 결과도 이와 유사하다. “회원여러분. 허파가 뒤집어집니다(게시일: 2007. 8.13)”는 댓글이 51건, 조회는 1,219건이었다. 이슈의 성격에 따라서는 운영과 관련하여 운영진의 책임과 정보의 신뢰성 등으로 발생한 문제로 치열한 토론이 벌어진다.

3) 네트워크

네트워크는 사람들, 대상, 사건 등으로 규정되는 노드(node)의 집합체이다(Putnam, 1993). 네트워크는 상호작용을 만들어내는 자발적인 질서이므로 사회적 자본이 고립상태에서는 발전할 수 없고 연계형식의 커뮤니티에서 발전할 수 있다(장용호, 2002:83~90). 따라서 네트워크는 그 질서를 유지하는 형태이며 사회적 자본의 외연적 표피로서 형식적으로 사회적 자본을 구성하는 신뢰와 협력, 규범을 유지, 발전시키는 기능을 한다.⁶⁾ 그리고 네트워크는 사회관계망을 파악할 수 있는 지표로 형태에 따라 사회적 연계와 강도를 분석할 수 있다.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네트워크는 오프라인과 구별된다. 오프라인 네트워크는 지역·종교·혈연 등 전통적인 사회관계라는 물리적인 기반을 가지고 형성된 반면 온라인 네트워크는 시공간의 물리적 기반을 뛰어넘는, 경계 없는 확산이 가능하다(송경재, 2006). 본 연구에서는 ① 커뮤니티의 수평적 네트워크를 확인하고, ② 커뮤니티의 민주성, ③ 안정적인 네트워크 커뮤니케이션, ④ 외부 지역 커뮤니티와의 연계성, ⑤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상호작용성을 변수로 측정했다.

첫째, 수평적인 커뮤니티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2가지 차원에서 분석이 필요하다. 회원과 운영진의 입장이 모두 확인되어야 할 것이다. 먼저, 운영진은 수평적인 관계임을 강조한다. 운영진 의사가 커뮤니티 내에서 많이 반영되고 10여명의 운영진이 대표성을 가지는 시스템이라는 장점이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회원 역시 수평적인 네트워크 관계라는 면에서 동의한다. “화도사랑에 요청합니다”란 내부 건의 게시판에서 이는 잘 확인된다. 회원은 의견을 개진하고 운영진에게 제안을 하는 상향식 제안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즉 상향식 제안과 대의제, 그리고 하향식 의사결정과정⁷⁾이 혼용되고 있는 것이다.

둘째, 이와 연관해서 민주적인 네트워크 운영도 같은 맥락에서 분석이 가능하다. 의사결정 과정에서 나타나는 상향식 방식의 정점은 설문조사에서 나타난다. 운영진 간의 의견이 첨예하게 갈리거나, 회원으로부터 민원이 제기되어 이를 반영하고자 할 때 커뮤니티는 설문조사를 활용한다. 그리고 결과도 투명하고 공개하고 집행함으로써 민주적인 네트워크 구축에 도움을 주고 있다.

6) 색스니언(Saxenian, 1994)은 실리콘 벨리(Silicon Valley)와 보스톤의 루트 128(Route 128)지역을 비교 연구하여 사회적 네트워크 구성이 문화적 요소에 의한 신뢰와 협력의 규범을 형성하는데 기여한다고 증명했다.

7) 2008년 4월 20일 현재 커뮤니티 내의 민원 게시판에는 2008년에만 28개의 의견이 개진되었다.

〈표 3〉 주요 설문조사 내용 분석

번호	일시	구분	내용	조회수	참여자 수	결과 공개
1	08년 4월 14일	토론 요청	화도사랑 운영진과 회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182	10명 (토론)	공개
2	07년5월15일~31일	설문	화도사랑 자체 홈페이지 전환	796	99명	공개
3	06년12월14일~20일	설문	남양주시 건설교통과 버스노선 정비(개선)사업 관련 고객만족도 조사	218	94명	공개
4	06년 12월 10일	설문	도시재정비 촉진지구(뉴타운지구) 거주가구 주거현황 조사	-	1,980명	공개

* 출처: 〈화도사랑〉커뮤니티 설문 조사방에서 연구자가 취합, 재구성.

셋째, 안정적인 커뮤니케이션 역시 다양한 측면에서 발견된다. 정보소통과 정보 신뢰도의 향상은 단기간에 형성된 것이 아니다. 개방적인 네트워크 정보구조에서 지역적 기반을 가진 공적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일상적인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다. 주민 상당수가 〈화도사랑〉에서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커뮤니케이션이 안정적이고 보다 발전된 형태로 진화한다. 이런 현상은 지역기반의 공공재가 형성되었고 이를 ICTs가 결합하면서 지속성이 나타난다는 선행연구의 결과와 동일하다(Hampton and Wellman, 2003).

댓글 많은 주요 게시물 100건의 내용분석 결과도 앞의 해석을 지지한다. 지역발전민원에 서 고발, 부동산 정보, 지역정보, 운영 관련 건의, 개인 신상 및 미담, 정치 관련된 내용 등 다양한 의제가 내부에서 토론되고 있다. 그리고 이런 현상은 2008년 이후 급속히 증가하면서 커뮤니케이션이 증가했다. 유추한다면, 〈화도사랑〉 커뮤니티에서 안정적이고 다양한 커뮤니케이션의 현황을 파악할 수 있다. 〈표 4〉에서도 확인된 바, 2006년 4분기에는 2건에 불과했던 관심 많은 글이 2008년에는 41건으로 증가한다. 이를 단순히 댓글 수로 등치시킬 수는 없을 것이지만 대표성을 가진 글을 추출했다는 점에서 안정적인 네트워크의 글쓰기와 커뮤니케이션 추세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표 4〉 댓글 많은 글 시기별 내용분석

작성 시기	지역 발전	사회 고발	부동산	일반 정보	카페 운영	신상 및 미담	봉사	정치 정보	의미 없음	계
06년 4분기	2 (100%)	0 (-)	0 (-)	0 (-)	0 (-)	0 (-)	0 (-)	0 (-)	0 (-)	2
07년 1분기	2 (40%)	0 (-)	0 (-)	1 (20%)	2 (40%)	0 (-)	0 (-)	0 (-)	0 (-)	5
07년 2분기	3 (37.5%)	0 (-)	3 (37.5%)	0 (-)	1 (12.5%)	1 (12.5%)	0 (-)	0 (-)	0 (-)	8
07년 3분기	4 (20%)	1 (5%)	2 (10%)	2 (10%)	9 (45%)	1 (5%)	0	0	1 (5%)	20
07년 4분기	3 (12.5%)	0 (-)	8 (33.3%)	4 (11.4%)	5 (14.3%)	0 (-)	3 (12.5%)	2 (5.7%)	0 (-)	24
08년 4/10일 현재	11 (26.8%)	3 (7.3%)	9 (22%)	5 (12.2%)	6 (14.6%)	1 (2.4%)	3 (7.3%)	3 (7.3%)	0 (-)	41
전체	25 (25%)	4 (4%)	22 (22%)	11 (11%)	21 (21%)	10 (10%)	3 (3%)	3 (3%)	1 (1%)	100 (100%)

* 출처: 〈화도사랑〉커뮤니티에서 연구자가 재구성.

넷째, 다른 지역 인터넷 커뮤니티와의 연계성 여부이다. 이는 사회적 자본의 중요한 특징으로 논의되는 결속형과 연결형 사회적 자본(bonding and bridging social capital)을 구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변수이다(Woolcock & Narayan, 2000). 사회적 자본은 사회가 동질적이지 않고 계층·계급·종교·인종·지역 등 다양한 인자들로 구성되므로 각 집단은 나름대로의 사회적 자본을 가지며 발전한다. 따라서 내적으로 결속(bonding)하거나, 외적으로 타 집단과의 연결(bridging)하는 사회적 자본의 형성이 가능하다.

분석결과, 〈화도사랑〉은 다양한 외부 인터넷 커뮤니티와 연결되어 있다. 전체 연결된 사이트와 커뮤니티는 36개로 집계된다. 지역 내 하위로 빌라와 주택 커뮤니티, 아파트 단지별 커뮤니티가 링크되어 있다. 주목되는 것은 남양주시 권역의 다른 지역 시민 커뮤니티인 호평평내 지역 2개 커뮤니티와는 동맹을 맺고 있다. 이와 같은 많은 커뮤니티 연계는 인터넷에서의 공동의 관심사를 가진 개인만이 아닌 집단 간의 연계도 가능하다는 점에서 그룹 일촌의 개념으로 정의할 수 있다. 운영진은 이런 연계와 네트워크 구축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지적한다.

공동의 지역 현안이 있기 때문에 집단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특히 동맹 커뮤니티 인 호평 평내지역은 화도와 교통, 개발범위, 지리적 특성이 관련되어 있어 동맹을 맺고 있다. 그리고 인터넷으로 정보를 공유하며 지역 현안에서는 공동대응을 한다. 한 예가 18대 총선에서 커뮤니티별 질문지를 국회의원 후보들에게 질문을 한 것이다.

(운영진 인터뷰 녹취, 2008년 4월 14일)

실제 커뮤니티에서는 남양주시가 장기 미래 비전으로 수립한 <2020 계획> 토론과 신설 다리명 관련 토론이 지역 내 다른 시민 인터넷 커뮤니티와 연계해서 의견을 조정하는 과정이 확인된다. 그리고 다른 사례로서 연결형 네트워크는 지역 공동의 이슈가 발생하면 연대가 강하게 표출된다. 경춘선 연장구간의 2009년 조기개통 관련 서명운동에 <화도사랑>은 중랑구와 남양주 지역 인터넷 커뮤니티인 중랑구YOGI 카페, 진건(사능)사랑모임, 오남진집사랑, 오남발전위원회, 오남사랑, 호평평내사랑, 덕소사랑 등과의 연대를 시도하기도 했다.

그렇지만 <화도사랑>의 e-사회적 자본 형태는 일반화된 공공재 성격과 함께 자기 이익적 경향도 있다. 지역 커뮤니티인 관계로 <화도사랑>은 공공재 문제에 관심은 있지만 상당수의 토론과 협의가 지역민의 이해관계와 밀접하다. 이점은 <화도사랑> 커뮤니티의 e-사회적 자본의 특성 중 일부 한계적인 측면이기 때문에 시사하는 바가 있다. 앞서 <표4>에서 확인된 바, 지역개발과 부동산 관련 글은 대부분 지역의 집합재적인 성격 즉 집단이기주의 성격도 같이 나타난다. 내용분석을 검토해 보면, 100건 중 구체적인 지역이기주의적인 색채의 글은 2건이다. '화도읍 신도시지정 서명운동', '마석고를 화도고로 마석역을 화도역'으로 등이 다. 이는 지역발전을 위한 핼피(pimfy)현상이기도 하나 다른 지역민들에게는 지역이기주의적인 논의가 될 수 있다. 이런 현상은 단순히 내용분석에서 2건이 발견된 것보다 개별 게시판에 제기된 의견에서 많이 나타난다. 구체적인 것이 지역명칭 문제, 다른 지역 고려의 무시 등이 다. 이에 대해 운영진도 다른 지역 커뮤니티와의 비난을 자제하라는 내용을 공지하기도 한다.⁸⁾

이런 현상은 개별 커뮤니티만의 이해관계가 반영된 형태로서 단순히 <화도사랑> e-사회적 자본 형성이 연결형적인 특성만을 가지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화도사랑> 커뮤니티는 지역 시민사회의 e-사회적 자본의 결속형과 연결형 적인 특성을 모두 가지고

8) 다음은 2008년 6월 7일 게시된 운영진 공지사항의 일부이다. "(전략) 같은 남양주시민끼리 이견차로 불거진 교량명칭에 관하여 현 사태에 대해 많은 안타까움과 걱정을 몸소 느끼고 있습니다. 다만 서로의 의견과 주장이 맞지 않는다 하여 상호 비방적인 글로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는 일이 없도록 해야겠습니다. (후략)" 이는 지역문제와 관련하여 지역 간 갈등과 일부 지역이기주의의 문제를 보여 준다.

있는 “중층적이고 과도기적 성격의 e-사회적 자본”이란 특징을 가진다.

다섯째, 커뮤니티 상호작용성의 특성이다. 이를 규명하기 위해서 e-사회적 자본과 커뮤니티 내부 그리고 오프라인과의 상호작용성의 특성을 살펴보았다(Stolle and Rochon, 1998). 먼저, 커뮤니티 내부에서의 상호작용성을 분석했다. 커뮤니티 게시판은 회원들 간의 주요한 정보소통 도구로 기능한다. 따라서 게시판에서 조회 수와 댓글 수는 중요한 상호작용성 지표가 된다. 회원들 간의 수평적인 네트워크 의사소통이 가능하며 나아가 e-공론장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다. 2008년 3월중 게시된 글의 조회 수는 10회~1,000회를 넘을 정도로 편차가 심하다. 이를 위해 댓글 많은 글을 내용 분석하여 조회 수를 교차 분석했다.

분석에서 확인되지만, 게시 글 내용에 따라 조회 수도 차이가 있다. 지역발전 민원과 부동산 관련, 그리고 커뮤니티 운영과 관련된 글들이 상대적으로 많은 조회 수를 기록했다. 주목되는 것은 부동산 관련 글이 22개 중 19개가 1,000회 이상의 조회 수를 기록, 커뮤니티에서 가장 관심 있고 토론도 많았다. 그리고 댓글이 많이 달리면서 토론이 활발하게 전개된 게시 글은 주로 지역발전과 관련된 글이다. 2007년 10월 12일 게시된 “45번국도 대체우회도로 즉시 착공 요구 서명운동”에는 520명의 댓글이 서명으로 달려 있다. 그리고 그 뒤가 “경춘선 복선철도 시민서명운동”이 댓글 502건이었다. 이런 현상은 커뮤니티 내에서의 풀뿌리 e-공론장의 가능성이기도 하지만 앞서 지적한 지역개발과 부동산 관련 비중이 높다는 점에서 지역이기주의적, 그리고 개인의 재산권과 연관된 이슈에 관심이 많다는 점에서 논쟁거리가 된다.

<표 5> 댓글 많은 글과 조회 수 간의 교차분석

항 목	내용분석									합계
	지역 발전	사회 고발	부동산	일반 정보	운영	신상	봉사	정치 정보	의미 없음	
조회수 1,000회 미만	17 (26.2%)	2 (3.1%)	3 (4.6%)	11 (16.9%)	16 (24.6%)	10 (15.4%)	3 (4.6%)	2 (3.1%)	1 (1.5%)	65
조회수 1,000회 이상	8 (22.9%)	2 (5.7%)	19 (54.3%)	0 (-)	5 (14.3%)	0 (-)	0 (-)	1 (2.9%)	0 (-)	35
Chi Square = 40.628 p=.000										100

다음으로 분석할 것이 지역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e-사회적 자본 형성과 오프라인과의 상호작용성을 규명해야 한다. 이는 오프모임의 횟수와 성격에서 살펴볼 수 있다. <화도사랑>은 현재 전체 오프라인 모임을 매달 진행하고 있다. 2007년에는 2개월에 1회 진행하던 것이 회

원들의 만남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면서 2008년은 월례 모임으로 바뀌었다. 주목되는 것은 〈화도사랑〉 오프모임이 회원 가족과 함께 만난다는 것이다. 오프모임은 지역 내의 교육과 육아문제에 관한 정보를 교류하고 지역 커뮤니티의 친구를 만든다는 점에서 많을 경우 50명까지 모인다. 이런 오프라인에서의 만남은 전통적인 지역이 분산된 커뮤니티와는 다른 형태이다.

지역성과 오프라인에서의 면대면 커뮤니케이션의 보장은 내적인 신뢰와 연대의식을 공고화해 줄 수 있다. 퍼트남(2000)이 인터넷 공간에서 우려한 면대면 커뮤니케이션의 부재에서 나오는 익명성(anonymity)과 소통의 부재는 〈화도사랑〉과 같은 방식으로 해소 가능성이 발견된다. 요컨대, 지역적 기반을 가진 커뮤니티의 경우 연대의식의 형성이 단순히 인터넷 네트워크만이 아닌 면대면 접촉이 가능하고 이를 통한 상호작용성으로 더욱 빨리 신뢰의 네트워크가 형성되고 협력할 수 있는 토대가 된다.

4) e-사회적 자본과 시민참여

다음은 e-사회적 자본이 시민참여 내지는 정치참여로 발현되는 지를 분석했다. e-사회적 자본의 형성은 시민참여로 발현되는 것은 많은 선행연구에서 밝혀진 바다(송경재, 2007; Kraut et al., 2002; Putnam, 2000). 이를 분석하기 위한 세부 변수는 ① 커뮤니티 내의 시민참여 성격의 메뉴 존재 ② 지역 시민참여의 존재를 측정했다.

〈화도사랑〉은 회칙에 정치적인 목적으로 회원 활동을 반대하고 순수한 시민 친목 커뮤니티로서 지역개발과 지역사랑을 실천하는 단체를 지향한다. 그러나 활동을 면밀히 살펴보면, 지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시민참여 행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첫째, 커뮤니티 내의 시민 청원(petition)이다. 청원의 주요 내용은 지역관련 민원을 관공서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인터넷에서 서명을 받아 오프라인으로 제출한다. 〈화도사랑〉에서 최근 대표적인 청원은 지역인문계 고등학교 유치이다. 화도읍에는 그동안 인문계 고등학교가 없어서 지역민의 자식이 중학생이 되면 이사를 가곤해 지역 발전에 큰 장애가 되었다. 사립고는 1개가 있지만 인구수에 비하면 부족해 인문계 고등학교 유치는 중요한 민원이었다. 〈화도사랑〉은 이 점에 대해 끊임없이 문제를 제기했고 남양주시, 청와대 등에 민원을 제기하고 서명운동을 주도했다. 그러나 쉽게 허가가 나지 않아 〈화도사랑〉차원에서 주민소환제 검토와 길거리 서명운동, 거리행진을 기획했다. 비록 집회 며칠 전에 남양주 도시계획 심의와 경기도 교육청의 학교설립 인가가 결정되면서 집단행동으로 연결되지는 못했지만 〈화도사랑〉이 단순한 비정치적인 커뮤니티가 아님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댓글 많은 글 분석에서도 이런 현상은 확인된다.

〈표 6〉 주요 청원관련 게시 글

번호	제목	작성일	조회	댓글 수
1	45번국도 대체우회도로 즉시 착공요구 서명운동	20071019	1,899	520
2	경춘선 복선전철(망우(-)마석)구간 2009년 우선개통 시민서명운동	20070625	1,360	502
3	45번국도 대체우회도로 조속한 착공을 요구하는 길거리 서명운동 착수	20071005	513	35
4	[화도관련 민원진행상황] 마석고 관련	20070725	280	7

* 출처: 〈화도사랑〉커뮤니티에서 연구자가 재구성.

그리고 〈화도사랑〉은 별도의 민원 게시판을 설치해 회원들이 누구나 민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했다. 여기서 회원들의 의견이 모이면 집행부가 집단 명의의 민원이나 청원을 제기한다. 실례로 45번국도 교통난 민원에서는 1,899명이 방문하고 520명이 댓글 서명을 달았을 정도이다. 화도에서 서울 도심까지 연결되는 9205번의 폐선반대운동 등 활발한 청원운동이 진행되었다. 이는 〈화도사랑〉이 단순히 친목도모만이 아니라 지역문제에 있어 중요한 행위자이고 지역발전을 위한 견제기능과 읍민의 대변인 역할을 수행함을 알 수 있다. 과정에서 형성된 회원과 시민들의 수평적인 신뢰의 네트워크는 지역 발전과 협력의 토대가 된다(Pharr and Putnam, 2000).

커뮤니티 내부의 또 다른 시민참여 메뉴는 정치 현안에 관한 설문조사이다. 예를 들면, 화도읍 이슈 설문조사를 부정기적으로 실시한다. 가장 최근의 이슈는 2008년 4월 18일 게시된 한반도 대운하와 관련된 설문조사이다. 〈화도사랑〉은 지역과 연계된 정책과 행정과정에 일정한 의견을 집약시키는 기능을 온라인상에서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둘째, 정치적인 색을 부인하지만 〈화도사랑〉은 지역 이슈에 관한 정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인터넷 커뮤니티이지만 지역 공동의 이익과 회원 개개인의 사적 이익이 결합됨으로 정치 참여도 적극적이다. 확인된 것은, 18대 총선과 2008년 5월부터 한국을 흔든 미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시위였다.

먼저, 총선기간동안은 후보자들에게 지역 의견을 개선하는 방식의 정치참여 활동을 전개했다. 입후보한 각당 후보들에게 ‘화도읍 발전과 지역일꾼 선정을 위한 주민질의’를 해서 후보자들에게 답변을 받았다. 그리고 내용을 공개해 후보자 정책을 평가하고 올바른 대표자를 선출할 수 있도록 하는데 도움을 주었다. 주민질의의 시민참여는 과정도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전개되었다. 먼저, 온라인에서 회원들이 게시판을 운영하면서 질의서를 만들고 이를 운영진이 검토해 16개 항의 질문지를 각 당 후보에게 전달되었다. 내용은 주로 지역발전 현안과

관련된 교통, 교육, 환경 문제 등이었다. 그리고 이를 후보자들에게 전달하고 내용을 그대로 18대 총선 기간 동안 공개했다.⁹⁾

18대 총선 기간 동안 청원 및 질의록을 만든 것은 〈화도사랑〉만이 아니라 남양주 시내 모든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준비되었다. 대선과 같이 전국적인 선거가 아니라 지역 일꾼을 뽑는다는 의미에서 시민의 이해를 대변할 후보를 선출하는 것이 민주주의와 지역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준비에서부터 답변까지 투명하게 공개했고 향후에도 이 답변지를 계속 공개해 국회의원이 헛된 공약(空約)이 되지 않도록 할 것이다.

(운영진 인터뷰 녹취, 2008년 4월 14일)

또 다른 유의미한 시민참여는 2008년 5월 진행된 미 쇠고기 수입반대 운동이다. 커뮤니티내에서 활발한 토론과 문제의식이 공유되었으며, 실제 촛불시위 등의 행동에 돌입하는 구체적인 참여까지 발견된다. 2008년 6월 1일부터 7일까지 1주일 동안 약 50건 이상의 관련 글이 게시되었다. 이전 기간까지 계산하면 상당한 비율이다. 주요 내용은 촛불문화제 참가 후기, 동참촉구, 정부의 논리 반대 등이었다. 이는 지역 시민사회의 커뮤니티가 내부의 e-사회적 자원이 형성됨으로 자발적인 사회문제 참여의 가능성을 보여준다. 물론 전국적인 이슈인 만큼 이를 단편적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 하나 주요 정치이슈가 발생할 때 인터넷 커뮤니티는 이미 형성된 신뢰와 규범의 네트워크를 통해 정보를 공유하고 이를 직접 참여로까지 연계할 수 있는 민주주의의 선순환 기제임은 분명하다. 따라서 e-사회적 자원이 형성된 커뮤니티는 자연적인 시민참여 활동도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

요컨대, 〈화도사랑〉과 같은 지역에 기반을 둔 커뮤니티는 이해관계가 동일하다는 집합제가 형성됨으로 신뢰와 협력이 다른 커뮤니티보다 강화될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인터넷 커뮤니티는 운영의 수평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지역 공동이해를 해결하기 위한 집단행동에 나서기 용이한 도구가 된 것이다. 또 선거이후에도 공약을 검증하고 지속적인 정치적인 관심을 유지한다는 점에서 커뮤니티에서 지역 정치, 풀뿌리 민주주의 차원에서 의미가 있다. 따라서 〈화도사랑〉과 같은 지역 시민사회의 인터넷 커뮤니티는 내적으로 e-사회적 자본의 축적이 시작

9) 운영진이 질문지를 만들고 이를 공개한 주요 일정은 다음과 같다.

2008년 3월 19일(수) ~ 3월 21일(금): 지역주민 청원 및 질의록 수렴 완료

3월 22일(토): 개별 입후보자에게 질의록 전달

3월 28일(금): 답변서 수신완료 / 개별후보자 답변록 〈화도사랑〉 공지화

3월 29일(토): 남양주 갑구 후보자 공약 등록 완료

* 출처: 2008년 3월 19일자 게시 글 “화도읍 발전과 지역일꾼 선정을 위한 주민질의 및 답변청원서 최종 의견 수렴”에서 연구자가 발췌

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넘나드는 토론과 활동이 동원, 조직화한다. 그리고 2008년 총선과 촛불문화제 사례에서도 확인되지만 지역 정치 사랑방인 e-토론장, e-공론장 기능을 수행하는 시민참여 활동을 전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지역 시민사회 인터넷 네트워크 형성은 기존에 개별적이고 고립적인 존재였던 시민을 “네트워크화 된 시민”으로서의 임파워먼트(empowerment)을 강화할 수 있는 도구가 되고 있다. 이는 기존의 지역 정치권력 구도에서 전통적인 정치과정의 경로와는 다른 형태의 정치적 행위자 역할을 수행할 가능성이 확인된다.

V. 요약 및 결론

채드윅(Chadwick, 2006)의 강조대로, 인터넷 현상은 거스를 수 없고 문제는 더 이상 온라인에 정치가 있는지 없는지에 관한 논쟁이 아니라 무엇이 형성되고 무슨 결과가 발생하는지로 논쟁중심은 옮겨지고 있다. 본 연구는 지역 커뮤니티의 e-사회적 자본 분석에 천착해 지역 시민사회 인터넷 커뮤니티의 사회적 자본 파괴를 예견했던 학자들(Furnback & Thompson, 2000; Putnam, 2000; Tonn, Zambrano, and Moore, 2001)의 논의와 반대로 e-사회적 자본의 형성이 가능함을 규명하고자 했다.

연구 결과, 지역 시민사회의 커뮤니티 구성은 네트워크화 된 개인으로서의 시민 권능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e-사회적 자본 형성이 가능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사회적 자본을 구성하는 신뢰와 규범, 협력적 네트워크의 형성은 다양하게 표출되고 있으며 단지 커뮤니티 내부문제가 아니라 현실과의 상호작용성 속에서 발전한다. 지역 시민사회 커뮤니티는 e-사회적 자본을 형성, 내적으로 수평적인 e-공론장 또는 네트워크 공론장이 형성되고 이것이 현실의 시민참여를 위한 기제가 되고 있다. 그러나 e-사회적 자본의 성격 면에서는 아직 과도기적인 특징도 발견된다.

지역 시민사회 인터넷 커뮤니티의 e-사회적 자본의 특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이 4가지로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지역 집합체가 시민 개인과 집단의 이익으로 형성되면서 인터넷은 중요한 정보소통과 집합행동의 공간이 되어 e-사회적 자본이 축적된다. 인터넷이라는 기술이 지역 시민사회와 결합되었을 때, 온-오프가 융합되는 시민문화와 e-사회적 자본이 형성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과정은 지역 시민의 표현의 자유에 관한 욕구, 참여의 정신, 사회 문제에 대한 자각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팔란티리 2020, 2008).

둘째, e-사회적 자본은 현실공간과의 상호작용성 속에서 더욱 축적된다. 지역 커뮤니티는 분산된 커뮤니티와 달리 지역이라는 연고지를 특성으로 한다. 지역 연고지의 동질성은 서로 배신하기 힘든 객관적인 조건을 만든다. 상호 견제와 감시의 그물망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따라서 지역 시민사회 커뮤니티는 형식과 내용면에서 사이버스페이스에 운영되지만 실질적 뿌리는 지역성에 있다. 이런 상호작용성은 e-사회적 자본을 현실에서의 사회적 자본 형성과 연계시켜줄 것이다.

셋째, 지역 시민사회 e-사회적 자본은 지역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연결형과 결속형 e-사회적 자본이 모두 발견되는 “중층적이고 과도기적 성격”이 발견된다. 지역 시민사회 커뮤니티는 현실에서의 취미나 가치지향적인 커뮤니티와 비교해 낮은 거래비용과 진입장벽으로 인한 장점이 존재해 e-사회적 자본에 유리한 조건이 만들어진다. 그렇지만 울콕과 나라얀(Woolcock & Narayan, 2000)의 지적대로 지역연고라는 공통성으로 내적으로만 결속된 커뮤니티에서는 집단이기주의로 인해 더 큰 공동체의 이익을 해치기도 한다. 연구에서도 이는 발견되어 결속형 e-사회적 자본의 한계적인 측면도 발견된다. 따라서 이는 지역기반의 인터넷 커뮤니티가 공공성과 자기이기 추구라는 딜레마에서 그 가치의 비중이 따라 다르게 나타날 것이란 추론이 가능하다.

넷째, 본 연구에서 가장 중요한 결과로서, e-사회적 자본이 현실공간과 상호작용하면서 시민참여의 선순환 가능성이 발견된다. e-사회적 자본을 통해 형성된 학습된 시민참여는 정치적인 행동으로까지 발전하는데 일반적인 과정보다 적은 시간이 소요된다. 분석에서 살펴본, 2008년 4월의 총선과 5월의 미 쇄고기 수입반대 촛불문화제 등은 대표적인 시민참여의 선순환과정이다. 노리스(2001)는 인터넷이 정치적 이익, 정치지식과 참여 간의 선순환(virtuous circle)을 촉진하고 자기강화(self-reinforcing)하기 위한 낮은 진입장벽이 민주주의적 가치를 향상시킬 것이라고 했다. 본 연구에서도 인터넷을 매개로 하는 e-사회적 자본 형성은 현실과의 상호작용성 속에서 선순환이 가능하다. 그리고 e-사회적 자본의 시민참여는 단순한 순환적인 것이 아닌 변증법적 진화로서 높은 수준은 보다 높은 수준으로 상향한다. 이런 방향성은 특히 지역의제에 대한 문제제기, 국회의원 공약 검증, 전국적인 정치문제에의 관심과 참여 등 능동적인 시민참여로 확대할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한다.

지역 인터넷 커뮤니티에서의 e-사회적 자본으로 형성된 시민참여문화는 이런 장점으로 참여적인 문화가 형성되고 정치와 행정과정의 참여자로 조정자로 그리고 견제자로서 기능할 가능성이 크다. 요컨대, 지역 시민사회 커뮤니티는 e-사회적 자본의 선순환이 이루어진다면 지역의 풀뿌리 전자민주주의의 중요한 자양분이 될 것이다. 그리고 커뮤니티에서의 다양한 활동이 지역 정치문화와 시민참여문화를 풍요롭게 하는데 중요한 기여를 할 것임을 확인할 수 있다.

그렇지만 지역 시민사회 커뮤니티의 e-사회적 자본이 장밋빛 발전 전망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현재 지역 인터넷 커뮤니티의 e-사회적 자본 발전은 기로에 놓여 있다. 여러 장점도 발견되지만 한편으로 이해관계에 한정되어 지역 이기적인 결속형 e-사회적 자본으로 퇴보할 수도 있다.¹⁰⁾ 물론 아직은 연결형 e-사회적 자본 요소가 많지만 지역개발과 부동산 등 경제적 이해관계가 중심이다 보면 집합체로서의 지역발전과 경제적 이익간의 문제가 과도하게 부각될 수도 있다. 이점은 향후 <화도사랑> 지역 시민 커뮤니티만이 아닌 모든 커뮤니티의 공통된 문제일 수 있다. 따라서 지역 시민사회 커뮤니티가 보다 일반화된 신뢰와 가치의 공공재에 관심을 가지고 지역 발전과 부동산이라는 경제적 가치와 조화를 이루어야 할 것이다. 단순히 내적 연대만 강화한다면 현재의 e-사회적 자본은 공동체를 구성하는 개인이 속한 집단의 귀속적 특성으로 전화하고 말 것이다. 그런 맥락에서 보다 다양한 지역 시민사회의 인터넷 커뮤니티와 e-사회적 자본의 방향성에 관한 관심과 체계화되고 심층적인 후속연구를 기대한다.

10) 운영진도 밝혔지만 지역발전과 민원이 전체 글의 약 20% 이상을 차지한다는 점에서도 이런 증거가 발견된다(운영진 인터뷰, 2008년 4월 14일).

【 참고문헌 】

- 민병원. 2005. 『복잡계로 풀어내는 국제정치』. 서울: 삼성경제연구소.
- 박종민·김왕식. 2005. “사회신뢰의 생성: 시민사회와 국가제도의 역할,” 한국행정학회 동계학술대회 자료집.
- 박희봉·김명환. 2000. “우리나라 지역사회의 사회자본 증진에 관한 연구: 사회자본 측정과 분석을 위한 시도,” 『한국정치학회보』 제34권 4호.
- 박희봉·이희창·김종래·유재원·한인희·차일근·김철수·박병래. 2005. “사회자본과 정치참여: 한·중·일 3국 수도권 주민의 의식조사 분석,” 『한국정책과학학회보』 제9권 제4호.
- 송경재. 2007. “한국의 사회적 자본과 시민참여,” 세종연구소 『국가전략』 제13권 4호. 101-128.
- _____. 2006. “자발적인 시민참여 사이버 공동체의 사회적 자본에 관한 사례연구,”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회.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회』 제19호 221-255.
- _____. 2005. “인터넷 사회자본 연구의 동향과 과제,” 한국전산원. 『정보화정책』 제12권 제4호.
- 안명규·류정호. 2007. “인터넷 정치참여 요인에 관한 탐색적 연구: 대학생 이용자의 정치심리 변수와 인터넷 사회자본을 중심으로,”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회.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회』 제23호 113-148.
- 이원태. 2003. “사이버 공동체와 정치참여: 사회적 자본과 정치적 자본의 개념을 중심으로,” 제3섹터연구소. 『시민사회와 NGO』 제1권 제2호 1-40.
- 장용호. 2002. 『사이버공동체 형성의 역동적 모형』. 서울: 집문당.
- 조화순·송경재. 2004. “인터넷을 통한 시민정책참여: 단일이슈 네트워크의 정책결정과정,” 『한국행정학회』 제38권 제5호.
- 팔란티리 2020. 2008. 『우리는 마이크로 소사이어티론 간다』. 서울: 웅진씽스.
- Australian Bureau of Statics. 2002. “Measuring Social Capital-Discussion Summary and Next Steps,” Discussion paper.
- Blanchard, Anita. 2004. “The Effects of Dispersed Virtual Communities on Face-to-Face Social Capital,” Huysman, Marleen and Wulf, Volker. (ed.), Social Capital and Information Technology. Massachusetts: The MIT Press.
- Bourdieu, P. 1986. “Forms of capital,” in J. Richardson (ed.), Handbook of Theory of Research for the Sociology of Education. Westport, CT: Greenwood Press.
- Brehm, J., and Rahn, W. 1997. “Individual-level evidence for the causes and consequences of social capital,”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41:

- 999-1023.
- Castells, Manuel. 2001. *The Internet Galaxy*. Oxford University Press.
- Chadwick, Andrew. 2006. *Internet Politics: States, Citizens, And New Communication Technologies*. Oxford University Press.
- Coleman, James. 1990. *The Foundations of Social Theory*. Cambridge, Massachusetts: Harvard University Press.
- Diamond, Larry. 1999. *Developing Democracy: Toward Consolidation*. Baltimore and London: Th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 de Tocqueville, Alexis. 2003. *Democracy in America*. PENGUIN.
- Fernback, Jan. and Thompson, Brad. 1995. "Virtual Communities: Abort, Retry, Failrue?"
- Fukuyama, Francis. 1999. *The Great Disruption*. New York: Free Press.
- Giddens, Anthony. 1990. *The Constitution of Society: Outline of the Theory of Structuration*. California: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Hampton, Keith and Wellman, Barry. 2003. "Neighboring in Netville: How the Internet Supports Community and Social Capital in a Wired Suburb," *American Sociological Association. City & Community* 2: 4. 277-311.
- Hanifan, Lyda. 1916. "The Rural School Community Center," *The Annals of the American Academy of Political and Social Science*, 67. 130-138.
- Harwood, Paul and McIntosh, Wayne. 2004. "Virtual Distance and America's Changing Sense of Community," Shane, Peter. (ed.) 2004. *Democracy Online: The Prospects for Political Renewal Through the Internet*. New York and London: Routledge.
- Jones, Steve. 1999. *Doing Internet Research: Critical Issues and Methods for Examining the Net*. Thousand Oak, California: Sage. 이재현 옮김 2000. *인터넷 연구방법*.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 Kats, J. and Rice, R. 2002. *Social Consequence of Internet Use: Access, Involvement and Interaction*. Cambridge: MIT Press.
- Kerlinger, F. 1973. *Foundations of Behavioral Research*. New York: Holt, Rinehart and Winston.
- King, Gary, Robert Keohane & Sidney Verba. 1994. *Designing Social Inquiry: Scientific Inference in Qualitative Research*. Princeton : Princeton University Press.
- Koku, E, Nazer N, and Wellman, B. 2001. "Netting scholars: online and offline,"

- American Behavioral Scientist, 44. 1752-72.
- Kraut, Robert, et al. 2002. "Internet Paradox Revisited," Journal of Social Issue 58(1). 49-74.
- National Economic and Social Forum. 2003. The Policy Implications of Social Capital. Forum Report No. 28. Dublin Ireland: Government Publications.
- Norris, Pippa. 2002. Democratic Phoenix : Reinventing Political Activism.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_____. 2001. Digital Divide: Civic Engagement, Information Poverty, and the Internet Worldwide.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OECD. 2001. The Well-Being of Nations, the Role of Human and Social Capital. Centre for Educational Research and Innovation, Paris: OECD.
- Onyx, J & Bullen, P. 1997. "Measuring Social Capital in Five Communities," CACOM Working Paper Series, No. 41. Sydney: University of Technology.
- Pharr, S. and Putnam, R. 2000. Disaffected Democracies.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 Portes, A. 1998. "Social Capital: its origins and applications in modern sociology," Annual Review of Sociology, 24, 1-24.
- Putnam, Robert. 1993. Making Democracy Work: Civic Traditions in Modern Italy.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 _____. 2000. Bowling Alone: The Collapse and Revival of American Community. New York: Simon Schuster.
- Putnam, Robert and Resnic, Paul. 2000. "Closing the Divide: Turning virtual communities into real ones," Seattle Post. <http://seattlepi.nwsourc.com/opinion/focus25.shtml> (검색일: 2006년 7월 11일).
- Quan-Haase, Anabel and Wellman, Barry. 2002. "Capitalizing On the Net," Barry Wellman and Caroline Haythornthwaite(ed.), The Internet in Everyday Life. Malden: Blackwell Publishing.
- Rheingold, Howard. 2002. Smart Mobs : The Next Social Revolution. Perseus.
- Rohe, W. 2004. "Building social capital through community development" Journal of the American Planning Association. Vol. 70, No. 2.
- Sander, Thomas. 2005. "E-associations? Using Technology to Connect Citizens: The Case of Meetup.com," Paper Prepared for Annual meeting of the American Political Science Association, Sept. 2005.
- Saxenian, Annalee. 1994. Regional Advantage: Culture and Competition in Silicon

- Valley and Route 128.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 Stolle, Dietlind and Rochon, Thomas R. 1998. "Are All Associations Alike?", *American Behavioral Scientist* Vol. 42 No. 1. 47-65.
- Tonn, B. E., Zambrano, P., and Moore, S. 2001. "Community networks or networked community?" *Social Science Computer Review* 19. 201-212.
- The World Bank Group. 2004. <http://www1.worldbank.org/prem/poverty/scapital/home.htm> (검색일: 2005년 1월 6일).
- Whittington, Keith. 2001. "Revisiting Tocqueville's America: Society, Politics, and Association in the Nineteenth Century," in Edwards, Bob, Foley, Michael, and Diani, Mario (ed.), *Beyond Tocqueville* Hanover and London: Tufts University.
- Woolcock, M. & Narayan, D. 2000. "Social Capital: Implications for Development Theory, Research and Policy," *World Bank Research Observer* 15(2). 225-250.